


공동체 소식



성령 강림 대축일

하느님, 오늘 이 축제의 신비로,
모든 민족들과 나라에 세우신 하느님의 온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니,
성령의 선물을 온 세상에 내려 주시어,
복음이 처음 선포될 때 베푸신 그 큰 은혜를,
이제 믿는 이들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 주소서.

5월 기도지향

- + 안병환 발렌티노, 안현숙 크리스티나 가정
- + 마이클 모렌, 이영민 엘리사벳 가정

5월은 '성모성월' 입니다.

- 하느님의 어머니이시고 믿는 이들의 어머니이시며 한국 교회의 수호자이신 성모님을 특별히 공경하고 그분에 대한 신심을 더욱 두텁게 하는 달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 안내: 오늘로서 부활시기가 올해의 부활시기가 끝나고, 내일부터 연중시기가 시작됩니다.

■ 지난주일 '어머니 날 행사'에 수고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평협회

- 일시: 오늘(5.15) 미사 후.
- 장소: 나자렛 관

총구역회

- 일시: 다음 주일(5.22) 미사 후.

본당 쉼기도 모임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모임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10:00.
- 장 소: 본당 나자렛관.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파 견
142	215	175	493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향 복사
이번주일	문예나 요안나	문호진 안토니오
	차민서 임마누엘	정병훈 보니파시오
다음주일	정예진 한나	안광민 야고보
	정예찬 미카엘	김준영 요셉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정수한 베드로	김태중 예레미야 김시연 엘리사벳
차주	김대연 요셉	김화년 요안나 김명은 안젤라

애찬 봉사자

금주	정지현, 한순례, 조지연, 유수경
차주	김화년, 안현숙, 정명숙

헌금 봉사자

금주	정수한 베드로, 김대성 사도요한
차주	문운주 엘리사벳, 고영방 스테파노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5/8	72명	421불	1,640불
류기범, 감영진, 고영방, 이내익, 이영민, 이우석, 정준구, 한봉경 (총 8세대)			

성령 강림 대축일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2코린 4,18-

2016년 5월 15일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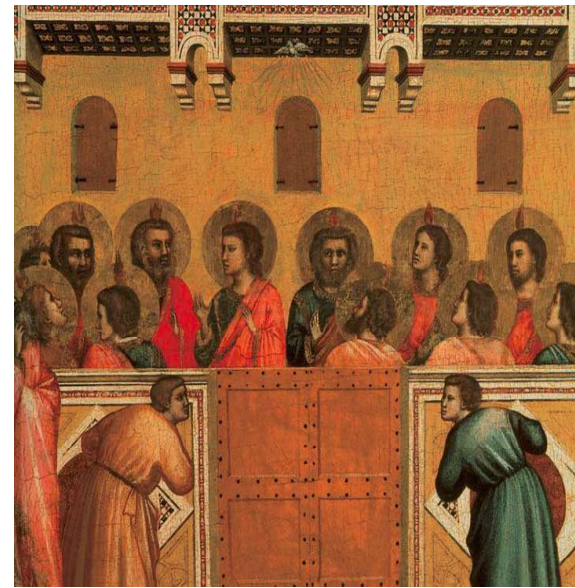
주보 편집 : 김대연 요셉 812.272.4770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 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 회 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 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부활 시기를 마무리하는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할 수 없다고 바오로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은사로 언제 어디서나 공동선을 위해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성화해설

성령 강림 (지오토 디 본도네(추정) 1306-12, 런던 내셔널갤러리)

“오순절이 되어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는데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사도 2,1-4 참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즉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도 베드로는 5천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지오토는 성령이 제자들에게 내리시던 그 날의 감격스런 체험을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 지영현 시몬 신부

제 1 독 서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2,1-11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우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 하느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시옵니다. 주님, 당신 업적 얼마나 많사옵니까! 온 세상은 당신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하옵니다. ◎
- 당신이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당신이 숨을 보내시면 그들은 창조되고, 온 우리의 얼굴이 새로워지나이다. ◎
-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리라. 주님은 당신이 이루신 일을 기뻐하시리라. 내 노래 그분 마음에 들었으면!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12,3ㄷ-7.12-13<또는 로마 8,8-17>

<우리는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 알렐루야.

복 음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0,19-23<또는 14,15-16.23ㄴ-26>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쉐 마

나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는



요한 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서는 부활하신 뒤 제자들을 찾아오시어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당신이 하시던 일, 곧 사람들이 용서를 받아 하느님과 화해하도록 이끄는 일을 계속하라고 명하십니다.(요한 20,22-23) 이렇게 보면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루카 복음과 사도행전에 따르면 성령은 하느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으로(사도 1,4),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내리는데(루카 1,4: 2,1), 예수님께서 떠난 뒤 두려움에 싸여 있던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뒤 힘을 내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사도 1,8) 그들에게 내린 영은 이미 창조 이전부터 활동하고 계신 분으로,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되시고(루카 1,35), 성령에 가득 차 활동하시며(루카 4,1.14),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십니다.(루카 10,21) 또한, 엘리사벳, 즈카르야, 시메온은 성령에 이끌려 기뻐하며, 예언합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성령에 가득 차 활동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종합해 보면, 성령께서는 하느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영으로 창조 이전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창세 1,2),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함께 하셨으며, 예수 승천 이후 종말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느님의 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독서는 이런 성령께서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내리셨다고 말합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이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과 맺은 계약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파스카 사건이 일어난 과월절로부터 오십 일째 되는 날 시나이산에서 하느님과 계약을 맺었다고 생각하며, 이날 자신들이 하느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음을 기억합니다. 바로 그날 성령께서 강림하시는데, 사도 1,5는 하느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세례를 받도록,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말합니다. 곧, 하느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자녀로, 하느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톨릭교회는 전통적으로 성령 강림 대축일을 교회의 생일로 기념합니다. 곧, 예수님의 파스카 사건으로부터 오십 일째 되는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여 교회가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사실, 성령이 없으면 그 누구도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1코린 12,3) 곧, 하느님의 백성으로 새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은 합리적 시각으로 볼 때 결코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이는 누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삶 안에서 성령께서 활동하심을 알게 되고, 하느님의 백성이자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2 독서는 이러한 성령께서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주어진 은사를 통해 공동선을 이루도록, 곧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켜나가도록 해 주십니다. 교회는 2000년 동안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들 가운데 가장 큰 은사인 사랑(1코린 12,31)을 통해 서로 하나가 되어 세상 안에서 하느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아 다시 한 번 성령께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곧 세상 모든 사람을 하느님과 화해시키는 일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내려 주시기를 청합시다. 또한 여전히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의 눈을 열어 주시어 그들도 모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로 모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사고 청합시다. 아울러 우리 눈도 열어주시어, 종종 놓쳐버리는 신앙을 바로 세우고,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 각자의 자리에서 공동선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 엄철호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주춧돌

예수님 꿈에 시달린 빌라도의 아내

빌라도의 아내는 신약성경에 잠깐 나오지만,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 관한 재판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있기 전날 밤 그녀는 밤새 꿈 자리가 뒤숭숭해서 잠을 깊이 잘 수가 없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는 꿈의 내용이 마치 현실처럼 너무 생생하여 사람을 시켜 남편 빌라도에게 전갈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무엇이냐 말했을까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마태 27,11-19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은 군중을 구슬려 예수님을 없애 버리자고 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문초했지만 이렇다 할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인물을 무죄로 방면하면 유대인 지도자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을 직감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도 남편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무척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폭동이 일어나려 하는 것을 보고, 물을 받아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였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책임이 없소. 이것은 여러분의 일입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무엇이냐 말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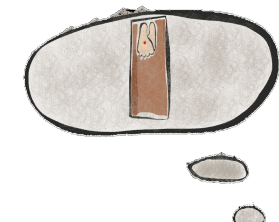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마태 27,20-26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총독 관저로 끌고 갔지만, 몸이 더러워져서 파스카 음식을 먹지 못할까 두려워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나와, “무슨 일로 저 사람을 고

소하는 것이오?” 하고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저자가 범죄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께 넘기지 않았을 것이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빌라도가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당신이 유대인들의 임금시오?”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요한 18,28-38

빌라도는 결국 자신의 양심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치적인 재판은 자신의 양심만을 따라서 판결할 수 없다는 것을 빌라도의 아내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빌라도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와 자연히 이스라엘 지역 상황을 알게 되었고 예언자라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빌라도의 아내는 무엇보다 자신의 남편이 쓸데없이 구설에 휘말려서 정치적으로 타격받지 않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빌라도의 아내는 무척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는 유대교의 개종자로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교회에서는 그녀를 성도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 글 허영엽 신부 | 그림 임의준 신부 -

복음묵상

선물

주시는 이는 선물로 주시지만,
받는 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아무튼,
선물은 늘 주신답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요한 20,21)

- 임의준 신부